

## 안외상(외상성 백내장 및 수정체 이탈)

### 개요

• 등록일자 : 2020-03-19    • 업데이트 : 2023-05-19    • 조회 : 1303    • 정보신청 : 95

### 개요-정의

외상으로 **수정체**가 파열되거나, 파열되지 않더라도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경우를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. 일부에서는 수정체가 부분, 또는 완전 이탈이 일어나며 수정체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정체 이탈이라 합니다. 이는 수정체를 **성모체**근에 고정해주는 성모체 돌기의 일부가 약해지거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

### 증상

초기에는 시력장애가 별로 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부상 당한 눈의 안은 **복시**를 호소하기도 합니다. 수정체가 완전이탈하여 전방 **전방**으로 이동하거나, **유리체** 내에 가라앉게 되면 시력 저하 및 포도막염이나 **속막(상) 녹내장**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충혈도 심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

### 진단 및 검사

#### 1. 문진

환자의 외상 과거력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에, 언제, 어떻게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.

#### 2. 안과 검사

백내장의 경우는 **새극동 검사**상 꽃잎 형태의 수정체 혼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. 수정체 이탈이 있는 경우는 환자가 눈을 움직일 때 **동체**가 떨리는 동체떨림이나 수정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환자가 누운 경우 중력에 의하여 확인이 더 쉬워집니다.

### 치료

#### 1. 외상성 백내장

수정체낭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체낭 안의 물질들이 전방으로 나와 포도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환자에 따라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.이 외에도 초기에는 비교적 투명한 꽃모양 백내장을 보이다가 점차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 녹골 모양의 심한 혼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시력 저하가 심하여 환자가 불편할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#### 2. 수정체 이탈

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, 즉 전방내로 탈구되거나 유리체로 수정체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 후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.

### 합병증

합병증으로 수정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포도막염이나 안압이 상승하는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수정체나 성모체 돌기 손상이 심하여 완전이탈되면 유리체로 떨어지면서 **망막 혈공**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### ▣ 관련 건강정보

[안외상\(각막이물\)](#)   [안외상\(각막창과상\)](#)   [안외상\(각막화상\)](#)   [안외상\(안외골절\)](#)   [안외상\(외상성 망막박리\)](#)   [안외상\(전방출혈\)](#)   [안외상\(천공 외상\)](#)

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**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**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